

2025年 日本基督教団・在日大韓基督教会平和メッセージ

日本基督教団 総会議長 雲然 俊美
在日大韓基督教会 総会長 梁栄友

その日、すなわち週の初めの日の夕方、弟子たちは、ユダヤ人を恐れて、自分たちのいる家の戸にはみな鍵をかけていた。そこへ、イエスが来て真ん中に立ち、「あなたがたに平和があるように」と言われた。そう言って、手と脇腹とをお見せになった。弟子たちは、主を見て喜んだ。
(ヨハネによる福音書 20:19-20)

自らが属する国民国家を代表する(represent)のではなく、「平和」が損なわれている世界にあって、イエス・キリストが吹きかけてくださる聖靈を受けた者として、小さくされ深い傷を負い、あるいは命を奪われた人々の声を再一現前する(re-present)者となることを望みます。

この地の表現者が「危機は単層でない」と発言したように、キリスト教界も「混沌とした」状況の中を生きているとの認識のもと、復活のイエス・キリストのからだには十字架の傷がありありと残っていたこと、つまり、復活は、十字架の死を「なかったこと」にしたのではないことをしっかりと胸に抱きつつ、イシューをカタログのように整理することからできるだけ離れて、危機の諸相／諸層に埋め込まれた問い合わせとともに噛み締めたいと思います。

●戦後80年をめぐって

1945年8月15日から80年の時を迎えるこの日の名称が「敗戦／終戦／光復」と異なった言葉で表現されることの意味を、そして、その差異はいったい何によってもたらされたのかを噛みしめることができる私たちでありたいと思います。その際、私たちは、誰の痛みを受け止めたのか。自分の属する共同体や国家を越えて、帝国主義／植民地支配と戦争という暴力を導いた人間の愚かさによって苦悩と痛みを被ったすべての存在の痛みの声を聞く耳は備わっていたのかどうか、この時、深く顧みる者でありたいと思います。

●日韓条約60年をめぐって

60年前に二つの国民国家の間に締結された条約の意味をともに噛み締めたいと思います。日本は植民地支配の「補償」という言葉を忌避し、「経済支援」という名分にこだわり、韓国は「経済優先」の必要に迫られ、ついには曖昧な妥協に至りました。このことによって、日本は歴史修正の勢いがつき、韓国は独裁政権の正当化に繋がったこと、そして、その後の分断をさらに深刻にしたことの意味を、また、「補償」ではなく「経済支援」という表現に固執したことにより、深い傷を追った個人の痛みが不間に付される道を築いてしまったことの意味を、ともに噛み締めたいと思います。その淵源には、朝鮮半島の北側を無視し、「朝鮮籍」として取り残された存在に対して、「煮て食おうが焼いて食おうが自由」との国家の意志が横たわっていたこと、そして「日韓」の双方にそのことに対する深い悔い改めが不在であったことを、ともに記憶したいと思います。

●この地と彼の地に積み重なった戦争をめぐって

「安らかに眠って下さい 過ちは繰返しませぬから」と刻まれた広島の原爆慰靈碑。「ベトナム戦争中に韓国軍が引き起こした虐殺事件に謝罪するため」に濟州島の聖フランシスコセンターに建

てられたピエタ像。自らを射抜く、この二つの碑が指し示す心の深さを、いま、この時、ともに胸に覚えることができる私たちでありたいと思います。併せて、朝鮮戦争を、この地の経済発展の契機として「特需」と認識してきたことへの深い悔い改めを共有するとともに、パレスティナなどで起きているジェノサイドを結果として見て見ぬふりをしてしまっている私たちが想像力を取り戻し、「世界には自分とは違う痛みがある」ことを痛切に感じることができる者でありたいと思います。

●ヘイトをめぐって

在日コリアンをめがけたヘイト・スピーチやヘイトクライム、そしてクルド人に向けて最も過激な矛先を向ける敵意が存在します。その敵意を後押しするような国会議員の言説が湧出する危機を、ともに危機と明らかに認識したいと思います。しかるべき法的措置がなされることの働きかけをおこなうとともに、「ともに生きることと、「誰かを排斥することとの分岐点はなぜ現れたのか、「ともに生きる」道を歩むキリスト者の道はどのように整えられるべきか、祈りのなかで、ともに模索する私たちでありたいと思います。この道は、いまも暴力にさらされている沖縄の民の苦悩や、原発事故の傷などなかったことにされつつあるように思われる福島の人々の痛みを、「はらわたがちぎれる思い」をもって共感された／「深く憐れまれた」(マタイ9:36)イエス・キリストのからだに連なる道であると信じます。

●貧困と格差、蔓延する不遇感のなかで

物価の高騰、給与の目減り、就職氷河期を生きた人々の抑圧された生に見られるように、多くの人が、いままでなく明るい明日を予測できない不安を感じながら、「わたしだって可愛そうなんです」とつぶやくような社会に、私たちは生きています。そのなかで、蔓延する「自己責任」という言葉を、人々はいつのまにか内面化し、「ともに生きる」道を自ら遮断しているのではないか。SNS 上に繰り広げられる薄っぺらな記号のような「コトバ」の氾濫のなかで、人々が敵意によって不安を満たすことが起きているとしたら、キリスト者の道は、そのような「コトバ」がもたらす不安の似非の「解消」ではなく、真の「平和」をもたらす、「いのち」のことば」を届けることであると信じます。

●私たちは、いま、この時、イエス・キリストの洗足の身振り(ヨハネ13)をともに想起したいと思います。生活の中で最も汚れた部位である足を洗うということ。それは、汚れた部位を指摘して非難し分断を深めるのではなく、その部位を洗い合うことによって、自らの汚れに気づき、悔い改めを忘却する身振りを離れて、新たな道に進むからだを整えることと信じます。「日韓」という国民国家のアイデンティティを背負い／背負わされつつも、私たちが背負うべき悔い改めの忘却という責任を引き受け、イエス・キリストの十字架の贖いに値する生を、「いま、ここ」から、再び、新たに、ともに紡いでゆきたいと思います。

2025.8.1

2025년 재일대한기독교회·일본기독교단 평화 메시지

재일대한기독교회 총회장 양영우
일본기독교단 총회의장 쿠모시카리 도시미

이 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요한복음 20:19-20)

자신이 속한 국가를 대표(represent)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가 훼손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을 받은 자로서, 작아지고 깊은 상처를 입거나 목숨을 빼앗긴 사람들의 목소리를 다시 재현(re-present)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본의 어느 문인이 “위기는 단층(單層)이 아니다”고 말한 것처럼, 기독교계도 ‘혼돈’의 상황 속에 살고 있다는 인식 아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는 십자가의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것, 즉 부활은 십자가의 죽음을 ‘없었던 일’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면서, 이슈를 목록(Catalog)처럼 정리하는 것에서 최대한 벗어나 위기의 여러 양상/여러 층위에 내재된 질문을 함께 짚어보고자 합니다.

●해방 80주년에 대하여

1945년 8월 15일로부터 80년을 맞이하여, 이 날의 명칭이 <패전/종전/광복>으로 다르게 표현되는 것의 의미를, 그리고 그 차이가 도대체 무엇에 의해 초래된 것인지 되새겨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 때 우리는 누구의 아픔을 받아들였는가?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국가를 넘어 제국주의/식민지 지배와 전쟁이라는 폭력을 이끌었던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고통과 아픔을 겪었던 모든 존재의 고통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깊이 돌아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한일조약 60주년에 대하여

60년 전 두 국가 사이에 체결된 조약의 의미를 함께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일본은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이라는 단어를 기피하고 <경제지원>이라는 명분을 고집했고, 한국은 <경제우선주의>의 필요에 의해 결국 모호한 타협에 이르렀다. 이를 통해 일본은 역사 수정의 동력을 얻었고, 한국은 독재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이후 분열을 더욱 심각하게 만든 것의 의미를, 그리고 ‘보상’이 아닌 ‘경제적 지원’이라는 표현에 집착함으로써 깊은 상처를 입은 개인의 아픔이 묻혀져버리는 길을 만든 것의 의미를 함께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그 근원에는 한반도의 북쪽을 무시하고 <조선적(朝鮮籍)>으로 남겨진 존재에 대해서는 ‘삶아서 먹든 구워서 먹든 자유’라는 국가의 의지가 깔려 있었다는 점, 그리고 ‘韓日’ 양측 모두가 이에 대한 깊은 회개가 부재했다는 점을 함께 기억하고 싶습니다.

●이 땅과 그의 땅에 쌓인 전쟁에 대하여

“편히 잠드소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새겨진 히로시마의 원폭 위령비.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이 일으킨 학살을 사과하기 위해 제주도 성프란치스코 센터에 세워진 피에타 동상. 자신을 훼뚫어 보는 이 두 비석이 가리키는 마음의 깊이를 지금 이 순간, 함께 가슴에 새길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한국전쟁(6.25 전쟁)을 이 땅의 경제발전의 계기로 <特需 특별한 수요>로 인식해 온 것에 대한 깊은 반성과 함께, 팔레스타인 등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량학살을 외면하고 있는 우리가 상상력을 되찾고 ‘세상에는 나와는 다른 아픔이 있다는 것’을 빼서리게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 혐오(Hate)에 대하여

在日코리안을 향한 혐오발언(Hate Speech)과 증오범죄(Hate Crimes), 그리고 쿠르드족을 향한 가장 과격한 적대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적대감을 부추기는 국회의원들의 담론이 쏟아져 나오는 위기를 우리 모두 함께 위기라고 분명히 인식했으면 합니다. 합당한 법적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함께 사는 것>과 <누군가를 배척하는 것>의 갈림길은 왜 생겼는지, <함께 사는>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의 길은 어떻게 정돈되어야 하는지, 기도하면서 함께 모색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길은 지금도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오키나와 사람들의 고통과 원전 사고에 의한 상처는 없었던 것으로 여겨지는 후쿠시마 사람들의 아픔을 <찢어지는 심정>으로 공감하고 <심히 불쌍히 여기신>(마태복음 9:36)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결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 빈곤과 격차, 만연한 불평등 속에서

치솟는 물가, 줄어드는 월급, 취업 빙하기를 살아온 사람들의 억눌린 삶에서 볼 수 있듯이, 많은 사람들이 그 어느 때보다 밝은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불안감을 느끼며

“나도 불쌍한 사람입니다.”고 중얼거리는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만연하고 있는 <자기 책임>이라는 말을, 사람들은 어느새 내면화하여 <함께 사는> 길을 스스로 차단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SNS 상에서 펼쳐지는 허울뿐인 기호(記号)와 같은 <말>의 홍수 속에서 사람들이 적대감으로 불안을 채우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리스도인의 길은 그런 <말>이 가져다주는 불안의 가짜 <해소解消>가 아니라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주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 우리들은 지금 이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발을 씻기시는 장면(요한복음 13 장)을 함께 떠올리고 싶습니다. 삶에서 가장 더러운 부위인 발을 씻는다는 것, 그것은 더러운 부위를 지적하고 비난하며 분열을 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부위를 서로 씻어줌으로써 자신의 더러움을 깨닫고 회개를 잊어버리는 몸짓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몸을 정비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韓日>이라는 국가의 정체성을 짚어지고/짊어졌으면서도, 또한 우리가 짚어져야 할 회개의 망각이라는 책임을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에 합당한 삶을 <지금, 여기>에서 다시, 새롭게, 함께 엮어 나가고자 합니다.

United Church of Christ in Japan – Korean Christian Church in Japan Joint Peace Message

On the evening of that first day of the week, when the disciples were together, with the doors locked for fear of the Jewish leaders, Jesus came and stood among them and said, "Peace be with you!" After he said this, he showed them his hands and side. The disciples were overjoyed when they saw the Lord.

(John 20:19-20)

As receivers of the Holy Spirit, blown upon us by Jesus Christ in a world where "peace" is being undermined, we seek to be, not representatives of the nation-states to which we belong, but re-presenters of the voices of those who have been made small, deeply wounded, or deprived of their lives.

An artist of this land once said, "Crises are not single-layered." We hope that the Christian community, recognizing that we are living in a "chaotic" situation, will firmly remember in our hearts that the body of the resurrected Jesus Christ carried the visible scars from the cross. That is, the resurrection did not make His death upon the cross "something that did not happen." Let us move as far as possible away from the tendency to catalog issues like object, and chew together on the questions embedded in the various aspects and layers of the crisis.

● On 80 years from the end of World War II

As we mark the 80th anniversary of August 15, 1945, we hope to be able to grasp the significance of the fact that the name of this day is expressed in different words—*defeat, end of war, restoration*—and what exactly gave rise to these differences. Whose pain was considered in each expression? We would like to be a people who, beyond the communities and nations to which we belong, deeply reflect on whether we had the ears to listen to the voices of all beings who suffered anguish and pain due to the folly of human beings who invited the violence of imperialism, colonial rule and war.

● On 60 years from the Japan-Korea Treaty

Let us digest together the significance of the treaty that was concluded between two nation-states 60 years ago. Japan shunned the word "compensation" for colonial rule and insisted on the term, "economic assistance," while South Korea was forced to "prioritize the economy," which eventually led to an ambiguous compromise. This gave momentum to revisionist history in Japan, legitimized dictatorship in South Korea, and served to deepen the divisions that followed. The insistence on the expression "economic assistance" rather than "compensation" built a road on which the deep wounds of individuals would remain unexamined. Let us digest these things together. Let us also remember that, at the source of this abyss was the will of the state to "do as it pleased" with people who were left behind as "*Chosen* (Korean) nationals," and that there was no deep repentance for this on either side, Japanese or Korean.

● On the wars that pile up in this and other lands

The Cenotaph for the Victims of the Atomic Bomb in Hiroshima is inscribed with the words, "Let all the souls here rest in peace, for we shall not repeat the evil." The Vietnam Pieta statue was erected

at St. Francis Center on Jeju Island, "to express apology and remorse for a massacre incident caused by the South Korean military during the Vietnam War." May we be a people, now, at this time, who can remember in our breasts the depth of heart pointed to by these two monuments. At the same time, let us share deep repentance for viewing the Korean War as an opportunity for economic development benefitting this land. Let us pray that we, who have turned a blind eye to the genocide that is occurring in Palestine and other places, can be a people who regain our imagination and painfully feel that "There are pains in the world besides our own."

● On hate

Hate speech and hate crime that targets Koreans in Japan exist, as well as hostility that is most extremely directed at Kurds. Let us clearly recognize as a crisis the crisis in which words promoting such hostility gush forth from legislators. In addition to urging appropriate legal action to be taken, let us explore together in prayer why the divergence arose between "living together" and "rejecting someone," and how the path of Christians who walk the path of "living together" should be prepared. We believe that this path leads to the body of Jesus Christ, who feels "gut-wrenching compassion" (Matthew 9:36) for the suffering of the people of Okinawa, who are still subjected to violence, and the pain of the people of Fukushima, whose injuries from the nuclear power plant accident appear to be being erased from memory.

● In the midst of poverty, inequality, and a pervasive sense of misfortune

As seen in the oppressed lives of people who lived through soaring prices, shrinking salaries, and the employment ice age, we live in a society where many people murmur, "I am pitiable, too," while feeling anxious about not being able to foresee a brighter tomorrow. Within this reality, people may have internalized the pervasive term "self-responsibility" and cut off the way to "living together." If, amid the flimsy, signal-like "words" that flood social media, people are satisfying their anxieties through hostility, we believe that the way of Christians is not to provide fake "elimination" of anxieties produced by such "words," but to deliver the "Word" of "life" that brings true "peace."

● Let us now recall together the gesture of Jesus Christ's washing of the feet (John 13).

Washing the feet, the dirtiest part of the body in daily life, is not done to point out and condemn unclean parts and deepen division, but to become aware of our own uncleanness through the mutual washing of that part, so we can depart from the gestures of forgetting repentance and prepare the body to move forward into a new path. While carrying/being made to carry the identity of the nation-state, "Japan/Korea" on our shoulders, let us take on the responsibility that we should bear, for forgetting repentance, and weave a life worthy of the redemption of the cross of Jesus Christ, from the here and now, again, anew, together.